

나비를 택한
꽃이 아닌



평강주
공주

〈온달전〉 속 평강공주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1. 〈온달전〉 인물소개
2. 설화내용
3. 설화를 통해서 본
평강공주의 현대적 의미

1. <온달전> 인물소개

평강공주



“대왕(大王)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온달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어찌 그 말씀을 고치려 하십니까?”

⋮

평강공주는 평강왕이 정한 결혼 상대를 거절하고 온달의 아내가 되고자 궁에서 나온다. 그녀는 값비싼 팔찌 수십 개를 팔꿈치에 걸고 온달의 집으로 향한다. 그녀는 팔찌를 팔아 살림살이를 마련하고 지혜로운 생각으로 ‘바보’온달을 고구려의 장수로 성장시킨다.

온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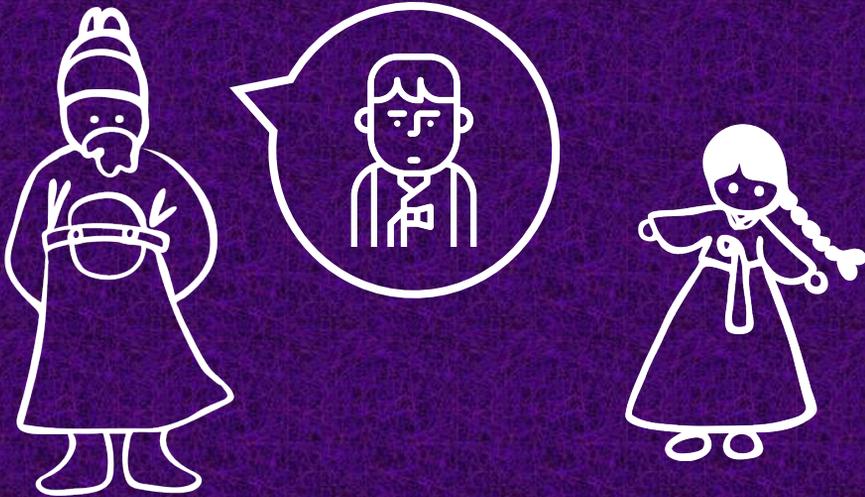
“이는 어린 여자가 마땅히 할 행동이 아니니, 분명히 사람이 아니고 여우귀신일 것이다. 나에게 다가오지 마라!”

⋮

처음 평강공주가 찾아왔을 때, 온달은 그녀를 보고 귀신이라 여겨 도망간다. 하지만 평강공주의 설득으로 함께 살아가게 되고 그 이후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평강공주의 지혜로 온달은 점차 고구려의 장수로 성장하게 된다. 또한 뛰어난 사냥 실력으로 평강왕에게 사위로서 인정받는다.

2. 설화 내용

“왕이 공주를 온달에게 시집보내겠다고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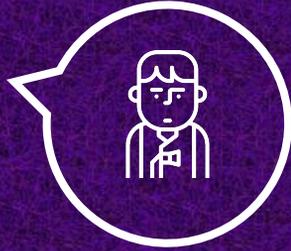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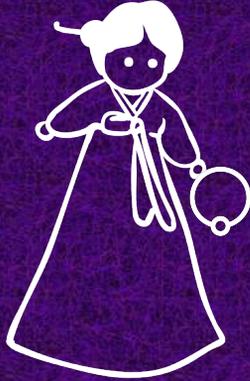
평강왕의 어린 딸은 잘 울었다. 왕이 놀리며,

“너는 항상 울어서 내 귀를 시끄럽게 하는구나.
어른이 되면 사대부(士大夫)의 아내가 되기는 어렵겠다.
마땅히 ‘바보온달’에게 시집가야겠구나.”라고 하였다.

왕은 늘 이처럼 말하였다.

2. 설화 내용

“공주가 온달에게 시집가겠다고 하다, 공주가 궁을 나오다”



[왕의] 딸이 16세가 되자, [왕은 그녀를] 상부(上部) 고씨(高氏)에게 시집보내려고 하였다. 공주(公主)가 대답하였다.

“대왕(大王)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온달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어찌 그 말씀을 고치려 하십니까? 평범한 사내도 말을 반복하지 않는데, 하물며 임금께서는 어떨겠습니까! 그러므로 ‘임금은 실없는 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대왕의 명령은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감히 명령을 받들 수 없습니다.”

왕이 화를 내며, “네가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진실로 나의 딸일 수 없다. 어찌 같이 살 수 있겠는가! 마땅히 네 갈 곳으로 가거라.”고 하였다.

이에 공주(公主)는 값비싼 팔찌 수십 개를 팔꿈치에 걸고서 궁을 나와 홀로 갔다.

2. 설화 내용

“ 공주가 온달에게 시집가겠다고 하다, 공주가 궁을 나오다 ”

현대적 의미

당시 고구려에는 신분이 존재했다. 그렇기에 당연하게도 사람들은 신분에 따라서 혼인을 하였고 이는 평강공주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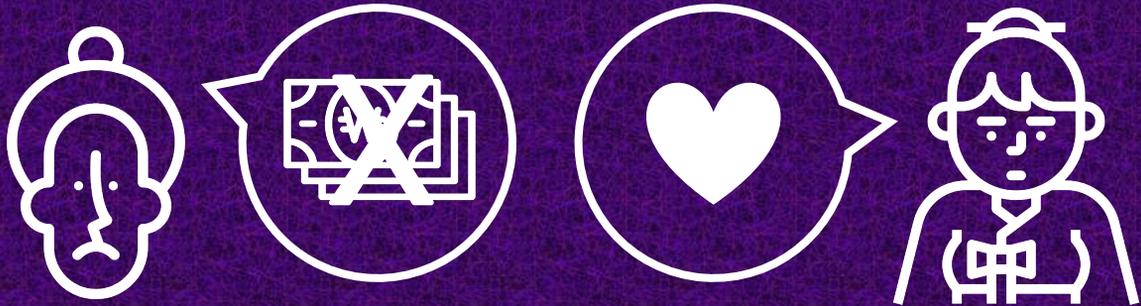
하지만 평강공주는 이를 거역한다.

어린 평강공주에게 평강왕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바보 온달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평강공주는 이러한 아버지의 말을 근거로 삼아 대왕이 말한 신의를 지켜야 함을 당당하게 주장했다.

그녀는 마침내 궁을 나옴으로써 기존의 권위주의적인 질서에 저항하였다.

2. 설화 내용

“공주가 온달 모자를 설득하다”



아침이 밝자, 다시 [집안으로] 들어가 온달과 그 어머니에게 자세히 말하였다. 온달이 우물쭈물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그 어머니가 말하였다.

“제 자식은 매우 누추해서 귀하신 분의 배우자가 되기에 부족하고, 저희 집은 지극히 가난하여 진실로 귀하신 분이 계실 곳이 되지 못합니다.”

공주가 대답하였다.

“옛 사람들의 말에 ‘한 말의 곡식이라도 쟁을 수 있고, 한 척의 베라도 꿰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진실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면, 어찌 반드시 부귀해진 다음에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 삼국사기 제45권 열전 제5(三國史記 卷第四十五 列傳 第五)

2. 설화 내용

“공주가 온달 모자를 설득하다”

현대적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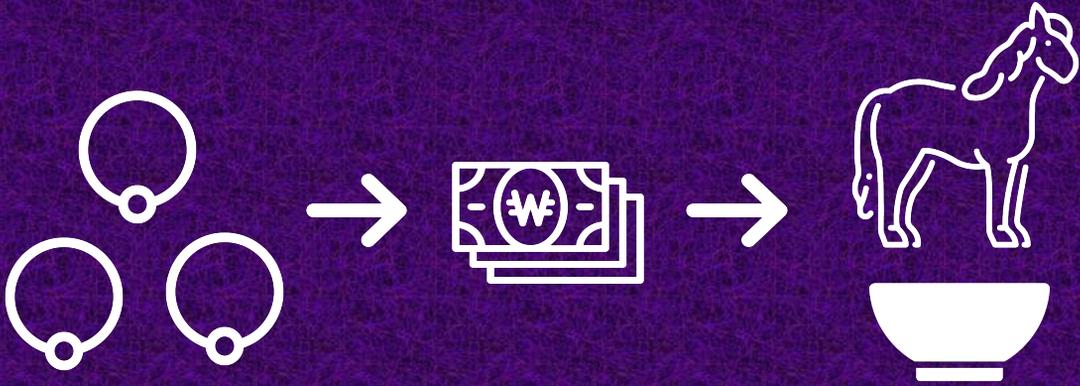
평강공주는 신분의 벽을 넘어선 인물이다.

그녀는 신분이나 부에 집착하여 사회를 바라보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 사회적 안목의 개방성을 가지고 있었다. 사실상 온달은 그녀와 맞지 않은 신분이었고 가난한 형편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평강공주는 “진실로 마음을 같이할 수 있다면, 어찌 반드시 부귀해진 다음에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며 신분과 부보다는 진실한 마음과 약간의 경제적 기반만 있으면 앞으로의 미래는 스스로 개척하면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2. 설화 내용

“살림살이를 갖추다, 국마를 구입해 이를 잘 기르다”



이에 값비싼 팔찌를 팔고 농지와 집, 노비 및 소와 말 그리고 그릇붙이를 구입하여 살림살이에 필요한 물품을 모두 갖추었다.

처음 말을 살 적에 공주(公主)가 온달에게

“시장 사람들의 말을 사지 말고, 반드시 국마(國馬) 중에서 병들고 쇠약해 내놓은 말을 골라서 사 오세요.”라고 하였다.

온달은 그 말대로 하였다. 공주가 매우 열심히 기르니 말은 날마다 살찌고 건강해졌다.

- 삼국사기 제45권 열전 제5(三國史記 卷第四十五 列傳 第五)

2. 설화 내용

“살림살이를 갖추다, 국마를 구입해 이를 잘 기르다”

현대적 의미

평강공주는 궁에서 나오기 전, 값비싼 팔찌를 들고 나온다. 여기에서 우리는 현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평강공주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팔찌를 팔아 살림살이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는 훌륭한 가정 경영자로서의 면모를 볼 수 있다.

한마디로, 그녀는 경제적인 능동성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반드시 국마를 사와서 기르라는 평강공주의 조언을 통해서 그녀의 지혜로움을 확인할 수 있다.

2. 설화 내용

“ 온달이 왕의 사위로 인정을 받다 ”

전공을 평가하게 되자, 온달을 첫 번째로 삼지 않는 이가 없었다.

왕이 기뻐하며 “이 사람이 내 사위다!”고 말하고, 예의를 갖추어 온달을 맞이하였으며, 관작(官爵)을 주어 대형(大兄)으로 삼았다.

이로부터 [온달은] 왕의 총애를 받아 부귀영화가 날로 더해갔고, 위엄과 권세가 매일처럼 높아졌다.”

- 삼국사기 제45권 열전 제5(三國史記 卷第四十五 列傳 第五)

현대적 의미

평강공주는 자신이 선택한 삶을 결국 아버지에게 인정받는다.

신분제라는 질서에서 벗어나 아버지에게 반발을 샀던 그녀지만, 결국 그녀는 온달을 아버지에게 사위로서 인정받게 만든다.

또한 그녀는 시대의식을 소유한 여성으로 “효와 충을 기존의 관념이 아닌 새로운 사회국가적 측면에서 해석하고 실천하였다.”¹

1 이배용(2003), 특집 : 평강공주와 단양에 대한 역사적 조명 ; 평강공주에 대한 여성사적 조명과 현대적 의미, 梨大史苑, 35, 23쪽

2. 설화 내용

“ 온달의 관이 움직이지 않다 ”

[온달을] 장사 지내고자 하였지만, 관(槨)이 움직이지 않았다. 공주가 와서 관(棺)을 어루만지며 “죽음과 삶이 결정되었습니다. 돌아가시지요!”라고 하자, 드디어 [관을] 들어 묻을 수 있었다. 대왕이 이를 듣고 비통해 하였다.

- 삼국사기 제45권 열전 제5(三國史記 卷第四十五 列傳 第五)

현대적 의미

움직이지 않던 온달의 관이 평강공주가 어루만짐과 동시에 움직인 것으로 보아 평소 서로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죽은 남편의 영혼을 달랠 수 있을 정도로 평강공주는 따뜻한 사랑의 소유자였다.

온달의 관이 비로소 그녀가 온 후 움직인 것은 그녀를 향한 온달의 사랑 뿐만 아니라 고마움과 애뜻함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온달전〉 속 평강공주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자신의 삶을 주체적인 선택으로 살아간 인물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 나간 인물

경제적 능동성을 가진 합리적이고 훌륭한 경영자

시대의식을 가진 인물로 자신만의 방법으로 성과 효과를 실천

따뜻한 사랑의 소유자

